

보도참고자료 (산업자원부 공보관실)	작성과	석유산업과
	담당자	염명천 과장 최영수 사무관
	전화	2110-5454

< 인터넷 : <http://www.mocie.go.kr> >

정부, 『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』 보완

- ◇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고유가 상황과 잠재적 석유공급위기에 대비하여,
 - 지난해 이라크戰을 대비하여 수립한 『석유위기 대응계획(03.1.28)』을 보완한 『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』을 마련하였음
- ◇ 이번에 보완된 내용은 지난해 계획과는 달리
 - 첫째, 석유수급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여, 시장요인에 의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와, 석유수급차질 발생과 국제유가상승이 병행되는 경우로 구분하고,
 - 석유공급측면의 위기징후 없이 국제유가만 상승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인 에너지 수요억제조치 없이 석유수입부과금·관세·내국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 위주로 대응하고,
 - 유가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 또는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방출·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함

- 둘째, 지난해에는 Dubai 油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29\$/b를 상회하는 시점에서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였으나, 새로 보완된 계획에서는 32\$/b를 정부의 가격안정화 조치의 개시시점으로 설정하였음

- 이는 유가변동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과 함께, 국제유가가 걸프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절적 요인·국제투기자금의 개입 등으로 연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$\pm 20\%$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

- 셋째, 국제유가가 35\$/b를 상회할 경우에는 지난해 계획과 마찬가지로 내국세 인하·유가완충자금 집행 등 가격안정화 조치와 함께 일부는 시장가격에 반영기로 하였음

- 유가상승에 따른 가격안정화를 위한 석유수입부과금·관세·내국세의 인하폭은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임

◇ 산업자원부는 이번 상황별 대응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석유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비축유 확충, 국내외 유전개발 참여, 신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과 아울러, 우리경제를 에너지 고효율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(끝)